



제주, 전북 원정서 선두 추격 가속페달

내일 하나원큐 K리그1 2022 23R 전북 vs 제주
전북에 강한 주민규 활약 속 수비 자신감 회복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전북 현대를 상대로 올 시즌 3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선두 추격의 불씨를 당긴다.

제주는 30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2 2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북과 격돌한다. 현재 제주는 9승 7무 6패 승점 34점으로 리그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라운드 3위 포항 스틸러스와 1-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선두권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아쉽게 실패했던 제주는 전북 원정에서 선두 추격의 가속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지난 시즌까지 전북을 만나면 고

전했던 제주였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3월 12일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둔 데 이어 5월 28일 전북 원정에서도 2-0으로 이겼다.

그 중심에는 K리그1 공격포인트 1위(12골 6도움) 주민규가 있다.

주민규는 올 시즌 전북을 상대로 3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 주민규는 올해 전북과 첫 맞대결에서 전반 10분 헤더 선제골을 터트린 데 이어 후반 40분 김주공의 추가 골까지 어시스트하며 제주의 시즌 홈 첫 승을 견인했고, 전북 원정

서는 멀티골을 터트렸다.

최근 컨디션도 최상이다. 현재 득점 1위(15골) 무고사가 일본 J리그 빗셀 고베로 이적하면서 주민규의 최초 국내 선수 득점왕 2연패 달성 가능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조규성(김천)과 득점 공동 2위(12골)를 기록 중인 주민규는 또 다시 전북에 강한 면모를 과시하며 득점왕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할 계획이다.

부상 압초로 흔들렸던 수비라인도 안정을 되찾았다. 지난 포항 원정을 앞두고 제주는 심각한 부상 공백을 감수해야 했다. 왼쪽 윙백 정우재가 종아리 부상으로 6주간 전력에서 이탈했고, 왼쪽 스톱퍼 정운도 코뼈 부상으로 5경기째 결장했다. 포항 원정을 앞두고 중앙 수비

수 김경재마저 부상으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물음표가 커졌다.

전북 원정에서도 남기일 감독은 최적의 수비 조합 및 전술 대처로 임할 계획이다. 게다가 휴식이 동안 체력 및 부상자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지면서 전술 운용이 숨통이 트였다.

남기일 감독은 “휴식기 동안 우리의 단점은 더 흐릿하게 우리의 장점은 더 뚜렷하게 만드는 데 선수들과 함께 집중했다. 주민규가 전북을 상대 강한 면모를 보였고, 최근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수비불안도 이겨내고 있다. 전북은 분명 쉽지 않은 상대이지만 또 다시 승리를 해야 하는 한 판이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조성윤기자

월드컵 4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플랜B 약점 제대로 노출한 벤투호
속적 일본에 2경기 연속 0-3 참패

벤투호가 핵심 자원 없이 나선 한 일전에서 또 한 번 참패하며 플랜B가 없는 약점을 제대로 노출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불과 4개월만 남겨둔 시점이어서 우려는 더 커진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7일 끝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서 일본에 0-3으로 완패했다.

지난해 3월 평가전에 이은 2경기 연속 0-3 패배다. 결과보다 경기 내용이 더 처참하다. 90분 내내 유효 슈팅을 단 1개만 기록할 정도로 완벽하게 일본에 밀렸다.

한국 축구가 기본적인 선수 기량에서부터 일본에 밀리는 현실이 드러난 가운데, 다양한 전술을 준비하지 않고 일부 유럽파 핵심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축구를 고집한 벤투호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벤투호는 ‘수비의 핵’인 김민재(나폴리), ‘중원의 엔진’ 황인범, 그리고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보르도) 등 유

럽파 공격수들이 빠지면 경기력이 크게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일본전은 이런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경기라는 것이다.

전술적으로 유연하지 못하고, 선발 명단에 큰 변화 없이 뽑은 선수만 뽑던 벤투 감독의 선택이 ‘자충수’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핵심 자원들의 유무에 따라 경기력의 진폭이 이렇게까지 커진다면, 감독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벌어져 버린 ‘속적’ 일본과 실력의 격차 문제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한국 축구 전체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다.

당장 문제는 월드컵이다. 불과 4개월을 앞두고 주전과 비주전 간 격차가 너무 크다. 중대한 문제를 노출해버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9월 A매치 2경기를 치르고 나면 바로 월드컵이다. 벤투호로서는 유럽파 주전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스마일 점퍼’ vs ‘현역 최고 점퍼’

우상혁·바심 8월 재대결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서

한국 육상에 사상 첫 세계선수권 은메달을 선물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에사 바심(31·카타르)과 재대결한다.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공식홈페이지는 27일(한국시간)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에 바심이 출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최 측의 ‘초청’을 받은 우상혁도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출전 의사를 밝혔다.

우상혁과 바심이 맞붙을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는 현지시간으로 8월 10일에 열린다.

둘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을 놓고 경쟁했다.

바심이 2m37을 넘어 대회 3연패에 성공했고, 우상혁은 2m35로 2위를 차지했다.

우상혁은 지난 21일 값진 은메달

을 목에 걸고 귀국하며 “바심이 이를 갖고 나왔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도 이를 갈았지만 경험과 경력 면에서는 내가 부족하다.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경기가 끝나고 ‘나는 바심보다 부족한 선수’라는 걸 인정했다”고 바심을 예우했다.

바심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역 최고 점퍼다. 바심은 2017년 런던 대회, 2019년 도하 대회에 이어 2022년 유진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세계선수권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연속 은메달을 딴 바심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장마르코 람베리(30·이탈리아)와 공동 1위에 오르며 한을 풀었다.

우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은 실내 2m36, 실외 2m35다. 하지만 우상혁도 바심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 그는 올해 5월 14일 ‘바심의 홈’ 도하에서 열린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에서 바심을 꺾었다.

당시 우상혁은 강한 바람을 뚫고 2m33을 넘어 우승했고, 바심은 2m30으로 2위를 했다.

연합뉴스



시원한 투런포 현지시간 27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캔든 야드 오리를 파크에서 열린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경기에서 템파베이 레이스의 최지만이 2점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고 고정민 3위 입상
대구대총장기 검도선수권

고정민(제주고·사진 오른쪽)이 제25회 대구대학교총장기 전국고등학교검도선수권대회 남고부 개인전 경기에서 3위를 차지했다.

고정민은 지난 26~27일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전에서 양진희(정읍고)와 치열한 접전 끝에 0:1로 패하며 3위에 올랐다.

고정민은 앞서 1회전에서 오병준(퇴계원고)을 2:0으로, 2회전에선 문성준(과천고)을 1:0으로 제압하며 3회전에 진출했다. 3회전에서 김반석(온양용화고)에 1:0 승리를 거둔 고정민은 4회전에서는 이수창(성남고)과 1:1에서 판정승으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고정민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1일까지 경남 남해체육관에서 열린 제5회 대한검도회장이 전국중고등학교검도대회 남고부 3학년부에서 3위에 이어 다시 입상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박동훈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 실무부회장이 이번 대회 우수심판상을 받았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합축
CONGRATULATIONS

MBC 제주어 드라마 오디션

고광수
(안덕)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주 MBC 제주어 드라마 오디션**에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빛깔나는 향토배우가 되어 제주와 제주어를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덕중학교 제19회 동창회원 일동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국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마포**’ 품질인증 **01**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